

원가절감·해외사업 전략 통했다 가스공, 부채축소·안전공급 성과

지난해 말 부채비율 397%로 축소
경영효율화·수익성 극대화 등 노력
해외 자원사업서 투자비 3조 회수
공급망 위기 대응 중동산 의존도 ↓
모잠비크·캐나다 사업 등 투자
2년 연속 평균 상회 주주배당 실천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막대한 미수금 누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동 중심의 수입선을 다변화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재무환경 속에서도 2년 연속 주주배당을 단행하며 주주 가치 제고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500%에 달했던 공사의 부채비율은 경영효율화와 수익성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힘입어 2025년 말 397%로 축소됐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요금 정책으로 인해 2024년 말 미수금이 최대 14조원까지 급증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했으나, 전방위적인 원가 절감과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한 결과다.

가스공사는 기존 계약의 가격 재협상 및 저렴한 신규 계약을 통해 LNG 조달 원가를 선제적으로 낮췄으며, 경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미수금 증가를 억제했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은 비핵심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과 전략적 가치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의 성과가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 역할을 했다. 가스공사는 최근 3년간 해외 자원사업에서 약

3조원의 투자비를 회수했다. 이 중 호주 2개 LNG 사업에서만 1.3조원을 회수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을 해외 사업에서 추가로 회수할 계획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한 수입선 다변화 성과도 두드러진다. 가스공사는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중동산 수입 의존도를 2022년 45% 수준에서 2025년 24%로 크게 낮췄다. 오는 2026년 이후에는 18% 수준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체결한 연간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 신규 도입 계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미 통상외교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가속화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2028년 말 생산을 목표로 하는 모잠비크 Coral II 사업의 최종 투자결정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는 캐나다 LNG 2단계 사업과 모잠비크 Rovuma 사업에 대해서도 최종 투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익 극대화뿐 아니라 자원물량 확보로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평택·광주·창원 수소생산기지와 전

국 57개소의 수소 충전소 구축 등 수소 공급망 확충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해 2023년 국내 최초로 LNG 벙커링 전용선(Blue Whale 호)을 건조·운영하는 등 친환경 신사업도 선도하고 있다.

미수금이 증가하는 재무환경 속에서도 2년 연속 주주배당을 시행하며 주주 중심 경영 실천도 성과로 꼽힌다. 2024회계연도 주당 1455원(시가배당률 4.10%)을 배당한 데 이어, 2025회계연도에는 주당 1154원(시가배당률 2.82%)을 배당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인 2.6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공사는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주주 가치 제고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단히 달려왔으며, 수많은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수급안정을 달성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도 마련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 소비자, 주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공기업 첫 저궤도 위성통신 도입

550km 고도 위치... 안정적 운영
재난·기상악화에도 지휘계통 유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산발, 집중호우 등 극단적 자연재해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공기업 최초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통신 두절로 인한 전력 설비 운영 공백을 원천 차단하고 현장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15일 저궤도 위성통신(LEO, Low Earth Orbit satellite) 서비스를 활용한 비상통신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전력 공급의 핵심 지휘계통을 상시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그동안 한전은 정전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 고궤도(3만8500km) 기반의 위성 전화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고궤도 위성 은장거리 신호 전송 특성상 데이터 전송

지연이 발생하고, 특히 기상악화 시 통신이 쉽게 끊기는 고질적인 불편 사항이 있었다.

반면 이번 도입되는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구 표면과 가까운 550km 고도에 위치해 지연 시간이 짧고 기상 변수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한전은 본사와 서울, 경기 등 주요 거점에 저궤도 기반의 위성 전화를 시범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본사와 지역본부 간 지휘·보고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강원, 경북 산간 지역에 차량용 및 이동형 위성통신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 지역 통신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 발생 시, 해당 장비를 현장에 즉각 투입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전력 설비 복구 작업을 지휘하게 된다.

또 산악·도서·해상지역 등 휴대전화 음성지역 현장에도 위성통신 기술을 적용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진공, 美 물류자산 인프라투자 확대

美 기업 CBRE와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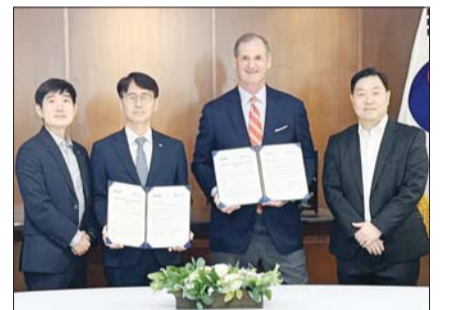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미국 인프라투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제 공급망 안정화 기여,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기반 확보 등에 목적을 둔다.

공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기업인 CBRE와 미국 시장 내 물류·상업용 부동산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그위넷’ 상공 회의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미국 시장 내 상업용 부동산 및 관련 투자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검토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기관이 힘을 한데 모을 분야는 ▲잠재 투자기회 발굴 및 검토 ▲시장 조사 및 입지 선정, 전략 자문 ▲물류·산업시설·항만 관련 자산 및 기타 상업용 부동산 자산 관련 지원 ▲개발사·투자자·운영사 등 전략적 파트너 소개 ▲실사 지원 및 현지 시장정보 제공 ▲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원 관련 기회 발굴 등이다.

해진공은 선박금융뿐 아니라 해운·항만·물류·공급망 전반에 투자하는 종합 해



지난 1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CBRE 간 업무협약 행사.

양지원기관이다. 미국의 터미널과 물류센터, 항만 배후단지 등은 글로벌 핵심 공급망으로서 공사의 전략적 투자 대상 중 하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내 잠재 물류 자산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고,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해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 이후에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미주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해진공의 물류인프라 투자 지원 방안이 안내됐다. 또 현지 투자환경 파악 및 공동 투자자 발굴, 조성 예정인 2차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에 대한 수요를 사전 조사도 이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산 온디바이스 AI칩 10종 생태계 가동

산업부, 국산 AI 칩 확보 전략 논의
기업과 ‘반도체 제조지원 TF’ 발족
구매비 지원·제조라인 할당 등 계획



김성열(오른쪽 세번째)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과 참석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로보티스 본사에서 열린 ‘제2회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컨퍼런스’에서 2주 보행 로봇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시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주요 맞춤형 국산 첨단 온디바이스 AI 칩 10종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팹리스(설계)와 파운드리(제조), 글로벌 IP(설계자산)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상반기 총회’를 열고, 국산 AI 칩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요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반도체 IP 기업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총사업비 8002.3억 원(국비 5111.1억 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렸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요기업 맞춤형 국산 첨단 온디바이스 AI 칩’ 10종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국산 AI 칩을 생산에 완제품

에 탑재 및 실증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개발된 칩의 안정적인 생산과 검증을 위해 삼성전자(파운드리)와 Arm, 시놉시스, 오픈엠티테크놀로지 등 국내외 주요 IP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제조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국내 팹리스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이 큰 반도체 IP 구매비와 설계 소프트웨어(EDA) 라이선스를 지원하고, 시제품이 지연 없이 제작될 수 있도록 파운드리 기술지원과 제조라

인 할당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기업이 시장 니즈를 반영해 앞에서 당겨 주고, 반도체 IP사와 파운드리가 첨단 설계·제조 기반을 뒷받침해주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국산 첨단 AI 반도체가 우리 제조업 전반의 대전환(M.AX)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에스와티니에 ‘농촌개발 사례’ 공유

현지 맞춤형 정책·제도 발굴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에 자리한 에스와티니 정부관료를 대상으로, 한국의 농촌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각종 정책을 소개한다.

공사는 에스와티니 농업부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에스와티니 농업생산성 및 식량안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수는 이달 하순까지 진행된다.

이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와티니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농업 생산성 저하, 식량수입 의존도 증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공사는 한국의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경험을 공유해 현지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 발굴·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의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조정, 청년농 육성 및 지원 정책, 농지은행 제도 운영 성과, 기후변화 적응 작물 개발, 고수확·고영양 작물 육종, 농촌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유통체계와 국가 식량안보,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및 로봇기술 활용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